

종단 소임자 대중공사
모듬·종합토론 ‘활기’

‘불교 믿으세요’라는 말을 생활화하자

‘종단 주요 소임자 대중공사’ 모듬 및 종합 토론에서는 포교의 혁신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훌륭한 불교는 훌륭한 스님이 만든다는 게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스님들의 전법능력 출가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법연수원 설치가 화두로 부상했다.

포교원장 스님이 기초발제에서도 제안했던 전법연수원은 “승가교육 질적 향상 위한 체계성 확립 통합교육이 필요하다(5모듬)”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소수라도 뛰어난 스님을 키워야 한다(6모듬)”는 동의가 뒷받침해졌다.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오심스님은 “사회에는 석·박사 출신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 과연 그들을 교화할 수 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자성(自省)의 질문을 던졌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은 “40대부터 본격적으로 포교에 나설 수 있도록 승려기초교육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법랍 4년이면 공찰 주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과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상 속의 사소한 부분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신도의 생일, 자녀의 출생일과 각종 기념일 장례 기일 등 모든 통교의례를 사찰에서 해주자(1모듬)”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 관제사 주지 경원스님은 “무릎이 아픈 노인들이 신도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어서 입식(의자)문화로 바꾸자”며 “지금의 법당에 교회 예배당 의자만 갖다 놓아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4모듬은 “지역 사회 유지원은 교구 혹은 지역사회가 공동 운명체이고 간화선을 재가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상프로그램화하자”고 제안했다. 6모듬에서는 “불교신자들의 성향과 특징을 세세하게 분석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특정 신도가 얼마나 사찰에 보시했고 수행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통합신도카드의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스님들 포교역량 강화
‘전법연수원’ 설립해야

기초교육 2년 법랍 4년
공찰 주지 임명 ‘제안’

‘주지 스님이 직접
소외계층 자주 만날 때
신도 자연히 늘어난다’

물론 근본적인 혁신은 의식 전환에서 시작된다. 불자 특유의 소극성 탈피가 우선이다. “비불자 무종교인에게 ‘불교 믿으세요’라는 말을 생활화하자”는 4모듬의 권고가 눈길을 끌었다. 2모듬에서는 “200명을 어렵게 포교해도 스님들이 선거 한번 잘못하면 400명이 나간다”며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촉구했다. 서울 약사사 주지 범해스님은 “포교혁신은 어찌보면 매우 간단한 일일 것”이라며 “주지 스님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것을 자주 보여주면 신도는 자연히 늘어난다”고 했다. 3모듬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사례를 들며 “출가자 양성을 위한 종단 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외제는 무거웠으나 분위기는 따스했다. 4모듬 토론결과를 발표한 동화사 포교국장 심담스님은 “죽을 각오로 포교를 해야 한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에서 공심(公心)과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소감을 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도반들을 믿고, 2600년 불교의 역사를 믿고 열심히 당당히 나아가자”는 중앙총회 부의장이 암스님의 발언에 좌중은 일순 숙연해졌다.



지난 13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발언문을 독송하고 있다.

“아직은 희망 있지만 그래도 긴장해야”

종교지형도 브리핑 ‘눈길’

‘영남은 불교’ 통념도 옛말
젊은이들 종교 욕구는 커져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선 최근 불교인구의 변동 추이와 한국의 종교지형도에 관한 브리핑도 진행됐다. 지난해 연말 불자들에게 충격 을 안겨준 통계청의 종교인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불교에 아직은 희망이 있으나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서는 개신교 967만명, 불교 761만명으로 불자는 10년 새 약 300만명이 줄어든다고 개신교는 최초로 종

교인구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의 동태를 파악한 조사에서는 여전히 불교 인구가 조금이나마 앞선다(불교 22%, 개신교 21%).

‘1위나 2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2위로 떨어졌느냐’다. 갤럽의 조사에서 불교인구는 1997년 18%로 크게 떨어졌다. 1994년 종단개혁의 폭력성이 일반인들에게 반감을 산 결과로 풀이된다. 브리핑을 주관한 진행된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은 “종교의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국민에게 얼마나 호감을 주느냐가 교단 성패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났듯 젊은 층의 종교 이탈은 불교계에도 큰 숙제다. 20대

는 종교인구 비율이 2004년 45%에서 2014년 32%로, 30대는 49%에서 38%로 대폭 감소했다. ‘그래도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은 불교가 강세’라는 통념도 거의 깨진 상태다.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역별 검색빈도 지수는 비등비등하다(경북: 불교 65 개신교 60, 부산: 불교 72 개신교 63, 울산: 불교 50 개신교 52).

개신교 강세 지역은 여전히 편차가 크다(서울: 50-70 경기: 56-77 광주: 43-74).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젊은이들이 제도화된 종교로부터는 떠나고 있지만 종교적 욕구는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며 “내가 아니라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사는 부처님의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 공동기획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캠페인 ④

불자 되고 싶은 탄자니아 학생들

지난해 9월 아프리카에 불교를 전하고 탄자니아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종단이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문을 열었다. 교육도량이 문을 연지 6개월 지난 현재 60명의 학생들은 식물 재배, 작물생산, 수확 관리 등 농업기술 등을 익히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도 접하고 대학 교과과정도 이수하며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 학생들은 오는 24일에는 한국에 도착해 연등회 등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예정이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학

생들은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플로리다 에라스모 밀림바(22세) 양은 “최고의 시설과 컴퓨터, 원에 수업을 배울 수 있는 보리가람 대학에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페디난드 저머너스 탕구(22세) 군도 “독자적 운영을 목표로 한 농경 훈련이라는 대학 목표에 따라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탄자니아를 위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지원과 환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다양한 농업기술

과 교육을 받고 탄자니아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보리가람 대학에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일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밝히는 이들이 많았다. 아우렐리아 안소니 마훈디(21세) 양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호 이해와 협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 다른 농부들을 돕고 그들의 삶과 수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꿈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스 살롬 마두후(22세) 군도



학교생활을 하며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학생들. 왼쪽부터 플로리다 에라스모 밀림바 양, 페디난드 저머너스 탕구 군, 아우렐리아 안소니 마훈디 양, 페리스 살롬 마두후 군.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토속종교를 믿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들은 보리가람 대학에서 생활하며 불교를 접하고 불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훈디 양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가 흥미롭게 생각됐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에 앞으로 좋

은 마음과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는 올바른 불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탕구 군 역시 “불교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져서 좋다. 앞으로 불교를 공부해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 것”이라고 밝혔다. 밀림바 양도 “더 많이 불교를 배워 진정한 불자가 되고 싶다. 불교는 나의 삶을 바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공청회

천년문화유산을 지켜냅시다!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105층 569m 초고층 초대형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에 따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전통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한걸음 더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지혜를 모아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한전부지 역사적 의미,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

- 제정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 김봉석 변호사(법률사무소 금상 대표)
- 이병인 교수(부산대학교)
- 홍석환 교수(부산대학교)

[토론] **종합 자유토론**

- 주경스님(조계종 기획실장)
-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
- 현대자동차 신사옥추진사업단
- 박부영 기자(불교신문사)

[사회]

- 소중섭(前 시사저널 편집국장)